

휴칠(옷칠)

휴칠은 일본의 칠공예에서 붓이나 주걱을 사용해 옷을 칠하는 기술 중 하나로, 장식 문양을 그리지 않고 옷칠만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영역은 단순히 옷을 칠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바탕 형태의 조형, 밀처리, 덧칠, 완성 등의 제작과정 전반을 포함합니다.

일본에는 옷나무가 풍부하게 자생하고 있었던 영향도 있어 칠기는 최소 기원전 4,000 년경부터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7 세기에 각 번(藩)들이 지역 산업 육성에 힘을 쏟으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칠공예는 급속한 발전과 정교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후 옷칠에 사용되는 도구와 기법은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해 왔습니다.

휴칠은 바탕에 직접 옷을 칠하는 방법과 바탕에 밀처리를 한 후 그 위에 옷을 여러 겹 덧바르는 방법으로 크게 나뉩니다. 이 2 가지 방법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구성, 내열성 등 기능적인 면에서도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둘 다 옷을 바르고 굳기를 기다린 뒤 다시 옷을 반복하여 덧바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옷은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 소재입니다. 옷의 광택과 뛰어난 내구성은 옷에 포함된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여 만들어지는데, 이 반응은 온도와 습도의 미세한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가 보급되어 공조관리가 가능해지기 전에는 옷이 잘 굳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또, 아직 마르지 않은 옷에 먼지나 이물질이 붙으면 덧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옷이 마르기 전 칠기를 잘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습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가진 편백나무나 삼나무로 만든 ‘우루시부로(漆風呂)’라는 방진용 건조상자 등 독자적인 도구가 개발되었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와지마, 야마나카 온천, 가나자와가 주요 칠기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칠은 1974 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아카지 유사이(1906~1984)가 그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시카와현에서는 1995 년에 시오다 게이시로(1926~2006), 2006 년에 고모리 구니에(1945~)가 각각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